



프랑스 : 문맹 퇴치와 노동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프랑스

이준용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14년부터 문맹 퇴치의 날(Journées nationales d'action contre l'illettrisme)이 지정됐고,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했다. 공공 및 지역 기관, 사회적 파트너, 프랑스 문맹 퇴치 기관(ANLCI)과 교육기관은 문맹 노동자와 기업 모두를 돕기 위해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책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프랑스 통계에 따르면, 250만 명이 문맹으로 읽기, 쓰기, 산수의 기본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¹⁾ 이는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없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쓸 수 없음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16~65세 사이의 인구 중 7%가 간단한 일상적 상황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및 산술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추정되었다. 재직자의 6%, 구직자의 10%가 문맹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의 9.5%, 10명 중 1명이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²⁾ 그중 4.6%는 문맹으로 간주된다.

문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기술을 배

1)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2012), "Enquête Information et Vie Quotidienne adossée au recensement de la population", <https://www.insee.fr/>.

2)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Journée défense et citoyenneté 2020 : près d'un jeune Français sur dix en difficulté de lecture", <https://www.education.gouv.fr/> (2021.6.27).

웠지만, 연습이 부족하여 습득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프랑스 문맹 퇴치 협회는 문맹의 정의, 단계, 수준, 해결책을 제시하고 모든 사람이 읽기, 쓰기 및 기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³⁾ 이것은 2020년에 최신화되었는데, 일상생활과 노동 등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어려움을 문맹의 개념에 통합했다. 국립통계청은 2019년 기준으로 3명 중 1명이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이 부족하다고 추정했고, 4명 중 1명은 인터넷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며, 5명 중 1명은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⁴⁾

■ 기초 문해력 조사와 연구 지표

프랑스에서 문맹을 주제로 한 연구는 1945년을 시작으로 이뤄졌는데, 인구조사 설문지에 특정 질문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립통계청은 당시 인구조사에 참여한 인구의 3.6%가 문맹이라고 추정했다. 1984년 프랑스 교육학 저널(*Revue française de pédagogi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당시 문맹 인구는 20만 명에 달했다.⁵⁾ 2018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지표를 살펴보면, 오늘날 프랑스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⁶⁾ 문해력 부문에서 프랑스는 참가국 중 20위에서 26위 사이를 차지했다. 기술 척도 8에서 2 미만인 학생의 비율은 21%이다.⁷⁾ 2000년(15%)과 2009년(20%)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던 이 비율은 2009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는 OECD 회원국 중 사회경제적 지위와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점수 간의 연관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국가인데, 특권층 출신 학생과 경제적

3) 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 "Cadre national de référence", <http://www.anlci.gouv.fr/> (2003.9.1).

4)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Une personne sur six n'utilise pas Internet, plus d'un usager sur trois manque de compétences numériques de base", <https://www.insee.fr/> (2019.10.30).

5) Joffre Dumazedier et Hélène de Gisors(1984), "Français analphabètes ou illettrés", *Revue française de pédagogie*, 69(10), pp.13~20.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관하여 3년마다 시행하는 이 평가는 만 15세 학생의 독해, 과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며, 참여국의 교육 시스템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7) OECD(2018),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18 Database", <https://www.oecd.org/>.

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평균 점수 차이가 107점으로 OECD 평균인 88점을 상회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내 이민자 출신 학생과 비이민자 출신 학생 간의 평균 독해력 격차는 52점으로 비이민자 출신 학생의 독해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통계청이 2012년에 실시한 IVQ 설문조사⁸⁾에 따르면, 프랑스에 거주하는 18~65세 인구의 16%가 쓰기 능력이 부족한데, 이 중 60.5%가 남성이며 50%는 45세 이상으로 밝혀졌다.

■ 지역별 문맹률 격차와 해외 영토 사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지역별 문맹률 격차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이다. 2012년 시행된 국립통계청의 IVQ 조사에 따르면, 문맹 인구의 약 50%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데, 26%는 농촌 지역, 22.5%는 인구 2만 명 미만 지역 출신이다. 이 지역의 문맹률은 전국 평균보다 두 배나 높다. 구체적으로는 루아르강 이북 지역에서 문해력 문제가 가장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미앵 교육 당국이 가장 큰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앤느 지역 청소년 중 12.9%, 솜므 지역 12.2%, 우아즈는 11.1%가 읽기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면 일드프랑스의 2020년 수치는 파리가 4.6%, 센생드니가 11.9%로 추정됐다.⁹⁾

국립통계청의 2012년 동일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본토는 인구의 7%가 문맹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국어어를 사용하는 해외 영토(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레위니옹, 프랑스령 기아나, 마요트)의 경우 문맹률이 본토의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다양하게 드러났다. 2020년 국방 시민의 날(JDC)의 조사를 살펴보면, 프랑스 전체 청소년의 9.5%가 독해력이 매우 낮은 반면, 해외 영토의 경우 그 수치가 레위니옹 25.4%,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 28%, 프랑스령 기아나 46.6%, 마요트 71.1%를 기록했다.

본토와 다르게 해외 영토에서는 학교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없는 18~25세 사이의 청년을 대

8)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2012), "Enquête Information et Vie Quotidienne adossée au recensement de la population", <https://www.insee.fr/>.

9)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Direction de l'évaluation, de la prospective et de la performance, "Note d'information 21.27", <https://www.education.gouv.fr/> (2021.6.1).

상으로 병역특례가 존재하며, 이 청년 중 약 39%가 문맹으로 드러났다. 문맹 퇴치는 병역특례자가 이수하는 필수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 산수부터 문법까지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플랫폼(GERIP)을 기반으로 한다.

■ 노동에서의 문맹 퇴치

문맹 노동자는 직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구직을 하거나 경력 전환 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17년 CSA의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전히 프랑스의 문맹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문맹 노동자는 서면 및 구두 지시를 이해하고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문맹인 노동자를 발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 문맹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지, 이를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또한 사용자는 어떤 유형의 위험을 예방하며,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기업,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노조는 문맹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데,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및 협회의 지원과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국립통계청의 2019년 연구를 살펴보면,¹¹⁾ 우리 모두에게 인터넷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은 일상생활 및 노동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의 21%는 이러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6%는 전혀 능숙하지 않고, 15%는 실제로 비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자 중 14%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읽어본 경험이 없으며, 54%는 개인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6명 중 1명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며, 3명 중 1명 이상의 사용자는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이 부족하다.

재직자의 6%, 구직자의 10%가 문맹 상태에 있다. 모든 16~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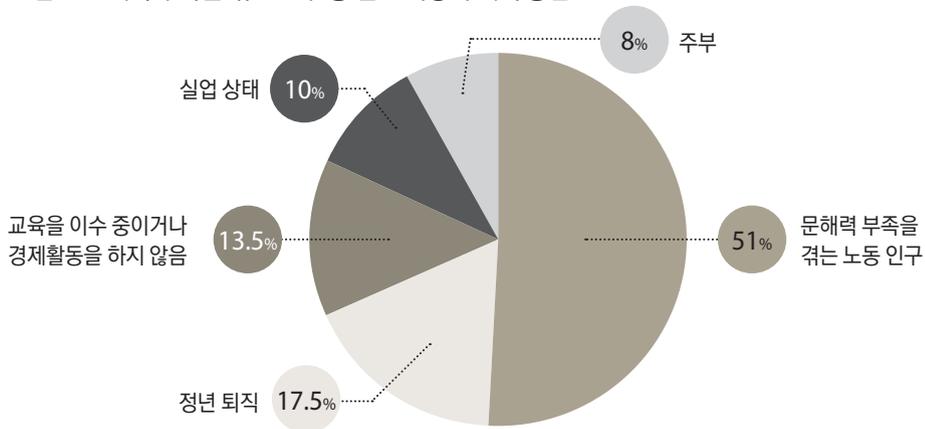
10) Institut national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Les impacts de l'illettrisme dans la vie professionnelle", <http://www.intefp.travail-emploi.gouv.fr/> (2021.9.1).

11)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Une personne sur six n'utilise pas Internet, plus d'un usager sur trois manque de compétences numériques de base", <https://www.insee.fr/> (2019.10.30).

테스트 결과¹²⁾에 따르면, 문맹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은 약 3만 명, 기본적인 지식 습득이 결여된 청소년은 약 7만 명으로 집계됐다. 즉 해당 연령대의 9%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기초 능력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교정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문맹이 될 위험이 있다. 해당 청소년은 온라인 양식 및 구매 목록을 작성하거나 제품 설명서, 약 처방전 등 간단한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이러한 청소년은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숨기고 문해력이 부족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문맹 퇴치 및 기초 교육을 목표로 한 공공정책은 프랑스 노동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된다. 문맹은 노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프랑스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취업한 노동자의 6%가 문맹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구직자는 10%에 달한다. 이는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프랑스어를 외국어로 접한 대상군과는 구별된다. 노동부는 문맹 퇴치와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을 주도하는 부처로서 교육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와 협력하고 있는데, 고용센터, 국립 성인 직업훈련기관(AFPA), France Compétences, 프랑스 문맹 퇴치 기관, 교육부, 문화부, 아동 및 청소년 빈곤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부처 간 대표, 기업, 노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1] 문해력 부족을 겪는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재직 중임



자료 : 국립통계청-문맹퇴치협회, 정보 및 일상생활 설문조사(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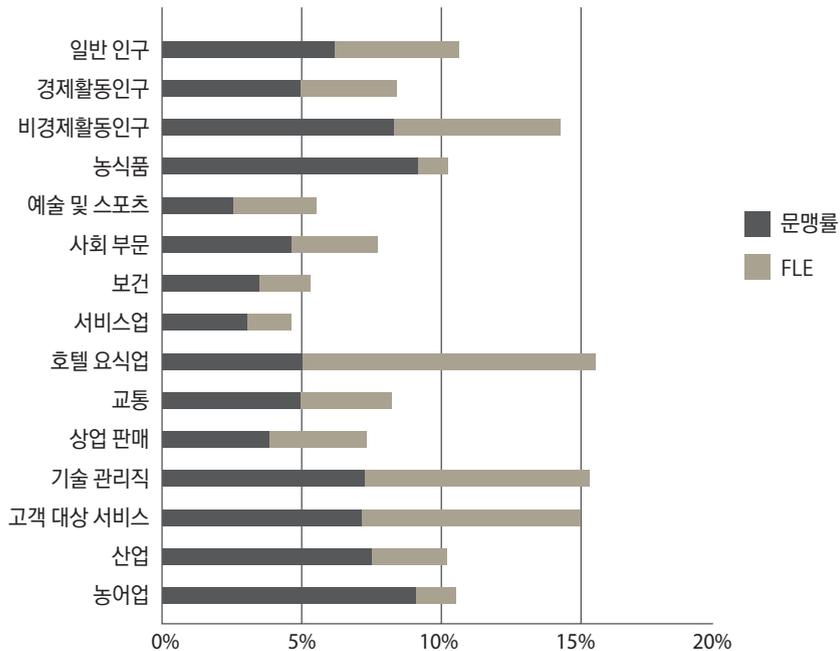
12)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Journée défense et citoyenneté 2020 : près d'un jeune Français sur dix en difficulté de lecture", <https://www.education.gouv.fr/> (2021.6.27).

■ 기업의 인식 제고와 제도 마련

프랑스의 문맹 인구 250만 명 중 절반 이상(51%)이 직장에 종사하고 있다. 문맹률 연구를 착수하고 문맹 퇴치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사회적 파트너와 직업훈련기관들은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프랑스 문맹 퇴치 협회는 «노동에서의 핵심 기술 참조»와 행동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파트너와의 운영 협력을 통해 훨씬 더 광범위한 해결책을 구축할 수 있다.

공공 또는 민간 기업에서는 문맹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초지식과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역량을 갖춘 직원을 양성해야 한다. 재교육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감안하여 디지털 도구를 도입하고 자율성이 요구되는 업무수행 방식으로 변화하는 등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직장 내 문맹의 문제를 확인하고 기본지식과 기술습득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드러낸다.

[그림 2] 직업별 문맹률과 프랑스어 외국어교육(FLE)



자료 : 국립통계청-문맹퇴치협회, 정보 및 일상생활 설문조사(2016).

2019년 6월, 국가인적자원협회(ANDRH)는 직원과 구직자의 문맹 퇴치를 위한 기존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여러 활동 분야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대표하는 138명의 관계자가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맹 퇴치와 관련된 문제는 기업 인사 부서에서 파악되고 있지만, 문맹 퇴치와 관련된 공공정책과 관계자에 대한 인식이 거의 또는 전혀 없으며, 대다수가 기초지식과 기술에 대한 재교육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를 제기했고,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 과정에는 인사부서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구직자 지원

문맹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지식과 기술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학업을 시작하기도, 이어가기도,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직업을 찾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기술투자계획(Plan d'investissement dans les compétences, PIC)을 통해 구직자 교육에 대규모 투자하고자 한다.¹³⁾ 문맹을 겪는 구직자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 계획에 포함해 기초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문맹 퇴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인 맞춤형 교육 경로를 구축하며, 모범 사례를 식별하고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 정부는 기술투자계획에 따른 대규모 지원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15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 

13) Ministère du travail, du plein emploi et de l'insertion, "Plan d'investissement dans le compétences", <https://travail-emploi.gouv.fr/> (2023.10.15).